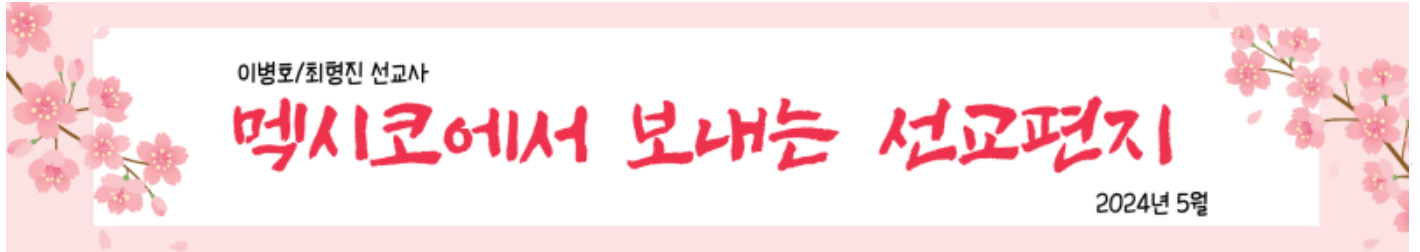


선교지소식

2024년 5월 이병호/최형진 선교사 선교소식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하네~♪♬

요즘 매일, 매 순간 듣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 싹이 나고 이제 이 여름을 힘있게 살아가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살아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축복의 생명력이 힘있게 뻗어 나가기를 기도하며 지난 짧은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을 보내 드립니다.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 현지교회 자립 프로젝트

파시피코 교회의 자립을 위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장례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교회가 점차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로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더욱 알리고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스스로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에 자신이 음식을 해오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처음 4명이었던 교인은 8명이 되었고, 이제는 11명이 되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성도들이 늘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델두야!



◆ 한글학교

한글학교 2024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겨울학기에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이 이번에도 등록하여 수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곳 한글학교에 등록한 현지인들은 대략 20여명이 됩니다. 물론 등급에 따라 반이 나뉘져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 2명과 저와 함께 현지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글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달고나와 함께 복음은..

제가 다니는 이곳 UABC 대학교는 멕시코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주립 대학교입니다. 학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멕시코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다니고 있는 언어학부에도 한국어 뿐 아니라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까 고민하던 중에 문득 달고나를 만들어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고나를 만들어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여 이제 비닐봉지에 달고나를 넣고 복음을 적은 쪽지와 함께 이 대학교에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넣고 복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람들은 현지 목사님이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대학교 뿐 아니라 파시피코 지역에서도 시간을 내서 전도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1:21)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



달고나 만들기 ^^

◆ 장모님(이용숙 권사)이 소천하셨습니다.

저를 막내 아들처럼 아껴 주시고 사랑해주신 장모님이(89세)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평소에 아프신 곳은 없으셨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어 쓰러지신 후로 수술을 하셨지만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국을 했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미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저는 3월 26일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 왔고 아내는 어머니 유품과 여러가지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볼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믿음위에 서서 달려갈 길을 힘껏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

◆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집에서 정말 아침마다, 저녁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6월 14일이 계약 완료가 되는 날이라 이제 다시 집을 찾아야 합니다. 이곳 티후아나는 집값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지난번에 집을 구할 때는 여러 성도님들이 귀하게 보내주신 선교 후원금을 집값으로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감사하게 좋은 집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좋은 집을 잘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교통편이나 사역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로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 아내와 아이들은..

아내 최선교사는 당분간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막내 하민이가 기침을 자주 해서 병원에 갔는데 천식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폐가 74%정도만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치료하고 이번 8월에 있을 고등학교 검정도시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턱이 자꾸 아파서 구강 내과를 예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모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하은이도 잘 준비되어서 대학 진학 및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하진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려니 많이 힘들어 합니다. 돕는 손길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 아이 하연이는 회사 생활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기도제목

- 언어습득을 위한 지혜를 주소서.
- 방과후 학교를 통해 파시피코 교회가 건강하게 자립하도록.
- 한인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역에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 달고나 전도를 통해 많은 새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 최형진 선교사의 건강과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후원계좌 한국 : 990-090819-582 하나은행

미주: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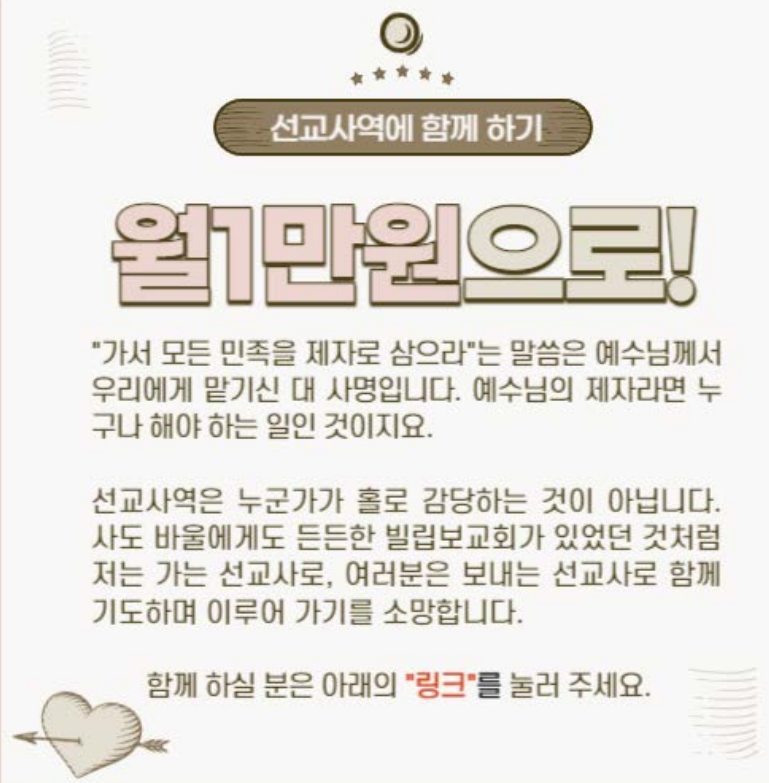
Global Partners USA

T: 714-774-9191

(GP) 이병호 / 최형진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선교사역에 함께 하기

월1만원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선교사역은 누군가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든든한 빌립보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주세요.



Click here to support 이병호♡최형진 사역 소식

안녕하세요.
이병호, 최형진 선교사입니다.

2010년부터 필리핀에서 ...
go.missionfund.org